

# 여성 비하 성폭력 난무하는 대학생 남톡방 ‘나쁜 늑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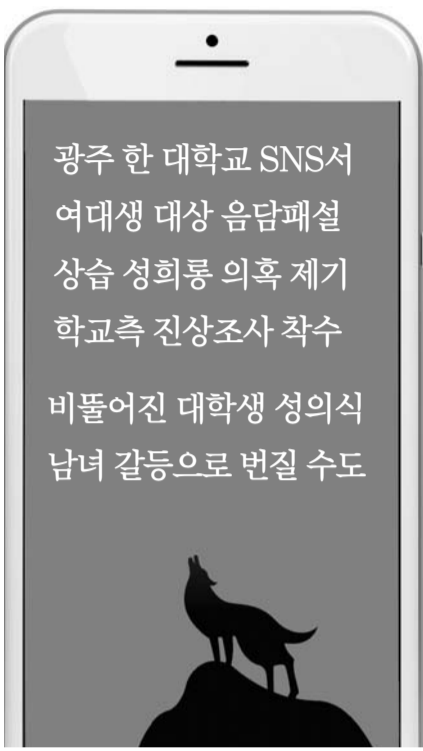
광주지역 일부 남자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SNS 그룹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여대생을 대상으로 욕설과 음담패설을 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글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성폭력 문제를 넘어 남녀 학생간 성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광주의 한 대학교 남톡방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외모를 비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측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새벽 2시께 광주의 모 대학교 대나무 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신을 이 학교 보건 관련 학과에 재학중이라고 밝힌 한 여학생이 우연히 보게 된 같은과 남학우 3명의 ‘남톡방’(남성들끼리 이뤄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대화내용이라는 글을 공개했다. 이 여학생은 ‘배신감과 수치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글도 덧붙였다.

공개된 글을 보면 남학생들은 같은과 여학생을 큰돈에 비유해 ‘○○반!’이라고 하는 등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내용의 글을 주고 받았다. 이들은 또 카카오톡에 등록된 여학생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외모 비하성 발언도 이어갔다.

한 남학생은 이날 레깅스(몸에 달라 붙는 바지)를 입은 여학생의 이름을 거론하며 “오늘 ○○이 팬티 안 입음?”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여학생은 “같은 학년이라 앞으로 계속 얼굴을 볼 텐데 학교 다니기가 무섭고, 이들이 주고받은 글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난다”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희롱하는 것은 맹백한 범죄 행위”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 여학생이 올린 글을 본 한 남학생은 “왜 모든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처럼 만들어 남녀 갈등을 만드는 지 모르겠다.”

억울하면 경찰서에서 해결하라”며 해당 글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 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라온 글은 이처럼 남녀 학생간 갈등이 확산되자, 이날 현재 삭제됐다.

학교측은 이처럼 성희롱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익명의 글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해 여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측은 이 같은 일들을 우려해 총학생회와 함께 학기 초 학과를 돌며 학생을 대상으로 미투예방 교육 등 성희롱 예방 등을 펼쳤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의 관계자는 “지난 주말 대나무숲에 게시된 내용을 파악해 지난 18일 관련 학과에 사실을 알리는 등 학교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광주 모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한 여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여성 생식기를 색으로 표현하는 등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유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희주 광주광역시경찰 수사과장은 “카카오톡 등 SNS상의 대화라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학생들의 글 내용이 도를 넘어선 것 같다”며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강진경찰이 19일 집을 나간 지나칠때 행방불명된 여고생을 찾기위해 도암면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강진 실종 여고생 아버지 친구 행적 수상 어머니 찾아가자 피하는 모습 CCTV 포착

지난 16일 강진에서 발생한 A(16·고등학교 1학년)양 실종사건에 A양의 아버지 친구 B(51)씨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B씨는 A양이 실종된 다음 날 철도선로 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B씨 집 앞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A양 어머니가 지난 16일 밤 집으로 자신을 찾아오자 B씨가

뒷문으로 피하는 모습이 포착돼 있었다.

A양 어머니는 딸이 친구들에게 SNS ‘페이스북’ 메신저로 “아버지 친구를 따라 해남으로 아르바이트를 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집을 나갔고 밤 늦도록 귀가하지 않자 B씨의 집을 찾아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휴대전화는 16일 오후 4시 30분께 전원이 꺼졌으며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또 A양의 휴대전화 GPS 신호가 마지

막으로 포착된 강진군 한 마을의 야산에 B씨의 에쿠스 차량이 2시간 여 주차된 모습이 인근 CC-TV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B씨가 어렸을 때 살던 지역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A양과의 연락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B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 B씨의 정확한 행적을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A양을 찾기 위해 B씨의 행적을 토대로 기동대 등 600여명, 헬기 2대, 경찰견, 드론 수색대, 소방서 특수수색대를 투입해 A양을 찾고 있다. 또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5억 뇌물 받고 200억대 사업 몰아준 한전 임직원 ‘철퇴’

광주지검, 조직적 비리 적발 상임이사 등 2명 구속 간부 6명 불구속 기소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백억원의 전기공사 사업비를 몰아 준 한국전력공사 상임이사과 간부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 비리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한전 상임이사 A(60)씨와 간부 B(57·1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 모 기업본부 본부장(1급)과 이 지역본부 간부(2~3급)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전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내고 공사를 따낸 전기공사 업자 3명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한전 간부들은 지난해 이들 업자로부터 각각 600만~1억 7000여만원을 받고 전기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뇌물 총액은 5억 3000만원에 달한다. 한전이 지난해 이들 업자에게 배정한 전기공사 추가예산은 221억원으로, 이 본부의 관련 예산(545억)의 40%에 이른다.

업자들은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한전간부들에게 상납했으며, 한전 간부들은 받은 뇌물을 조직 내 상사는 물론 부하 직원들과 나눠 챙기는 등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전기예산 배정,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이들 업자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자들은 또 한전공사를 쉽게 낙찰받기 위해 가족, 지인 등 명의로 11~21개씩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배전공사에 입찰에 참가해 중복으로 낙찰을 받았다.

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참고 등을 업체 사무실로 허위·위장 신고하는 등 각종 편법을 총동원했다.

업자들은 한전에서 발주하는 배전공사는 배전설비 건설·유지 관리를 위해 1개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2년간 해당 구역의 배전공사를 독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단 공사를 낙찰받은 뒤 각종 로비를 통해 추가 예산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업자들은 2015~2018년에만 추정 도급 가액 859억원 상당의 배전공사 17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계한 부장검사는 “뇌물 비유까지 정해 놓을 정도로 한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공기업 공사 비리를 강력 처벌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서삼석 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2016년 총선 정자법 위반 혐의

6·13 재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이 선고한 무죄가 그대로 유지됐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작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마피로법이 개정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

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사 선거조직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고, 포럼 회원이 개최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해고 소문 양심 상사 흥기 질러



○··자신이 해고될 것이라는 소문을 퍼트렸다가 며칠 전 직장을 흥기로 질러 한 차레 질렀다는 것.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서모(34)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서구 마북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한 흥기를 꺼내 직장 상사인 김모(39)씨를 위협하고 김씨의 가슴을 한 차례 질렀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이날 인근 모텔에 있던 서씨는 한 직장동료로부터 김씨가 자신이 해고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화를 통해 전해 듣고선 곧장 관리사무소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서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543,18㎡(469,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